

주거·일자리 등 시민 행복위해 올인... 살기좋은 광주 만든다



광주도시공사는 지역 개발과 발전을 생각하기에 앞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모토를 갖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노인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도시공사(사장 홍기남)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살기좋은 광주 건설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시 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온 도시공사의 각종 사업과 중장기 계획을 살펴본다.

도시공사의 지난 20년 성과

1993년 공사창립 이래 택지개발 7개지구 659만8000㎡를 개발해 광주시 도시 확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했고, 또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8개 지구 1만1300세대를 건설 공급했다. 2010년에는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평동2차 산업단지를 조성해 많은 기업들이 입주함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빗고을 골프장 및 연습장을 건립·운영해 수익금의 60%를 노인건강타운에 지원, 지역 노인의 여가생활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전국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콜센터 전용건물을 건립해 1300여명의 신규 여성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등산을 가꾸기 위해 증심사지구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상가 등을 이주하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했으며 그 외 광역위생매립장조성,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발전을 앞당겼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공동혁신도시조성사업 부지공사는 현재 완료되었고, 조경 및 전기공사는 99%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달 말이면 모든 공정이 완료된다. 광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진곡산단조성사업은 현재 6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시민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 운영사업

도시공사는 영락공원, 충곡·금남지하상가, 공공체육시설, 임대아파트, 증심사 주차장 등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업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로 쾌적한 환경 제공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이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북구 효령동에 위치한 광주영락공원은 화장장, 매장, 자연장, 납골당, 가족묘 등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전국최대 장사시설이다. 2011년부터 추진한 선진화계획에서 영락공원을 3대 스타사업으로 선정하고 전국 최고장사시스템

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모바일 사이버 추모관을 개설해 이용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시내 28개 장례예식장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장례예식장 등 사용료를 30~50% 인하, 일부 소모품은 무상으로 제공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실내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쾌적하게 관리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및 도시재생사업

도시공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광주시의 중점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립하고 있는 선운지구 공공임대 590세대(공정률 60%)와 하남2지구 도시형 생활주택 299세대(공정률 56.9%)를 건립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3개 단지 1200세대는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하남2지구를 공사를 착공해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2개 단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그리고 3726세대를 건립하는 하계 U대회 선수촌 아파트는 오는 201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U대

회 선수촌 아파트는 세계에서 최초로 도시재생방식으로 추진, 그동안 원주민 이주·건물철거·아파트 분양 등 모든 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했고, 현재 골조공사와 조적공사를 실시하는 등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사는 2012년을 도시재생사업의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의 복원'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노후 주택지 재생,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상업지 재생, 공공기관 이전부지 재생 등 4대 실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문화+일자리가 융합된 도심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최우수 공기업 선정 등 중견기업 도약 위한 경영선진화

도시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한 경영선진화계획은 중견기업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재무안정성 확보와 튼튼한 경영기반 구축, 성과주의의 조직관리, 신뢰의 기업문화 구현 등 추진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올해 선진화계획을 완성해 미래 경쟁력을 갖춘 공기업으로 변모, 초일류 공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 성과를 보면 당기순이익은 선진화추진 원년인 2011년에는 9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2억으로 대폭 증가해 공사 창립 이래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로 인해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보상비율 등 재무상태가 호전되면서 부채비율이 248%에서 218%로 낮아졌다.

도시공사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13년 경영평가에서 전국 지방공기업 1위, 한국지방공기업협회 주관 경영혁신 공모 우수상에 이어 최우수상,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올해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392개 지방공기업 중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경영 선진화 적극 추진...사회공헌 활동 대폭 강화할 것

홍 기 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광주도시공사는 '시민의 행복'을 경영 모토로 지난 1993년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성과를 거뒀고, 경영선진화 및 창조적 행복복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선정돼 공기업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홍기남 사장에게 향후 도시공사의 업무 방향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디지털정책학회로부터 최근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소감을 밝혀 달라.

▲우리 도시공사의 CSR 고유브랜드인 '창조적 행복복지 계획' 추진 성과를 대외로부터 인정받아 전국의 저명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학회로부터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도시공사 전·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이루어낸 모두의 성과라는 점에서 너무나 행복하다. 창조적 행복복지 추진계획은 시민의 행복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과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에 더불어 가는 광주공동체 건설에 뒷받침을 하기 위한 실행 프로그램이다. 오는 2018년까지 전국 최고수준의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5~10%)을 적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 정부에서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3년 전부터 경영선진화를 펴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초일류 공기업을 창조하고자 중견기업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기 비전을 설정해 재무건정성 확보, 튼튼한 경영기반 구축, 성과주의의 조직관리, 신뢰의 기업문화 구현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실행했다.

먼저 재무안정성 분야로는, 공사창립 이래 최대의 경영



성과를 달성해 당기순이익이 9억원에서 202억원으로 올랐고, 부채비율은 248%에서 218%로 줄었다. 그리고 3대 스타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인 호두메마을 건설·임대주택 건설·선진장례사업을 추진해 공사의 경쟁력 강화했다.

성과위주의 조직관리를 위해 유사기구를 3개 축소·통폐합했고, 결재단계 축소와 아울러 상위직급 22명을 줄여 신규 인력 17명을 공개채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고용창출로 연결했다.

신뢰의 기업문화 풍토를 위해 청렴 마일리지 등 선진 윤리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강화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확립해 무분규 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한 장기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임·직원 모두는 제 살을 도려내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경영 선진화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조만간 선진화계획을 완성하고, 창조적 행복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해 행복향상 창조도시 건설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공기업으로 재탄생하도록 노력하겠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www.nonghyup.com

창사 62주년

‘함께’의 힘은 ‘혼자’보다 강하기에...

함께의 힘은

패배를 승리로 이끌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포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듯,

농협, 그 하나의 이름으로

농업인과 국민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의 힘 - NH농협

NH 농협